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 종합 축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전시·체험 '전주시 주민자치 어울림 축제' 옛 야구장 부지서 개최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갈고닦은 재능을 뽐내고, 주민자치를 홍보하는 주민자치가 옛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26일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일대에서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2023 전주시 주민자치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진행돼 온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형식으로 꾸며져 주민자치 종합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을 냈다.

이를 위해 올해 어울림 축제에서는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선보여온 프로그램 공연 발표와 유공자 시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작품 전시·체험 △주민자치 활동 홍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어울림 축제에서는 전시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26일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일대에서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2023 전주시 주민자치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서예와 수묵화, 캘리그라피 등 200여 개의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 활동 사진전을 통해 동마다 특색있게 이뤄진 주민자치 활동을 홍보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캘리그라피

교실의 회원은 "그간 갈고 닦았던 글씨 솜씨를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어울림 축제를 통해서 나의 글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숙희 시 차지행정과장은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기고,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는 축제

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함유와 교육을 위해 35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단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벗어나 재능기부 및 축하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주민 건강 돌보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시

평화보건지소 전환 운영

전주시 평화동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평화1·2동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기능전환 승인을 받아 지난 2008년부터 도시형 보건지소로 운영해온 평화보건지소를 이달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인 등 취약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반을 두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온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재활보건 사업 △구강보건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또한, 센터 전환과 발맞춰 △장애인 관절기동법 위 운동교실 △의료기관연계 심뇌혈관질환 관리서비스 △주민



전주시 평화동 인근 주민 건강을 책임질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을 개시했다.

주도 소규모 건강동아리 확대 운영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총 49개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이어 내년에는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을 개보수하고 2층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를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건물 1층은 장애인 재활치료실과 심뇌혈관상담실,

건강증진센터로 활용되며, 건물 2층은 사무실과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실, 구강보건실로 꾸며지게 된다.

시는 향후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역할에 맞게 주민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지원과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우수 인력 채용

오는 12월 개원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직원 채용을 시작으로 개원 준비를 본격화한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연구 분야 직원과 관리 분야 직원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전자우편과 등기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 한다.

모집 분야는 △경제·산업 △도시·교통 △단소중립·기후변화 △일반행정 △문화·관광 등 총 5개의 연구직 분야와 연구원 행정 및 운영을 지원할 일반직 분야이다.

연구직 채용직급은 선임연구위원(나급) 또는 연구위원(가/나급)이며, 일반직의 채용직급은 일반직 8급 또는 일반직 9급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랑 듬뿍 담긴 밀반찬 나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26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다.

협의회 회원들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실에서 정성껏 만든 불고기와 장조림 등 밀반찬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강영이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옥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행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의 이웃사랑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관, 강사학교 '슬기로운 강사생활' 진행

전주시 평생학습관(관장 권인숙)은 오는 1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전주지역 평생학습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강사학교인 '슬기로운 강사생활'을 진행한다.

평생학습관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강사학교를 통해 평생학습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강사를 꿈꾸는 예비 강사를 대상으로 강사의 자격과 강의 트렌드 등 일반 소양 교육부터 교수법과 강의 설계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올해 강사학교에서는 강의 기법과 설계, 강사로 살아가는 법, 강사의 고충과 관리 등에 대한 4개의 주제를 담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시대에 슬기롭게 강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1월 6일에는 김수현 전북도 평생교육팀장이 첫 번째 강사로 나서 '평생학습 강사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지난 20년간 평생학습에 대한 오랜 고민과 그간의 노하우, 마음가짐,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강래경(사)한국강사협회 회장이 두 번째 강사로 나서 'TED처럼 구성해서 앵커처럼 강의하자'를 주제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변화에 맞서는 강의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강의에는 이미영 CrG교육코칭센터 대표가 '강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단력성'을 주제로 강사 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충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김옥기 기자

같이. 그린. 농어촌 모두의 옳은 내일이 되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촌용수관리, 생산기반 조성, 농가경영 안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넘어 글로벌 농어업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생산기반

국민의 주곡자급과
식량생산기반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 대단위 농업개발

농지은행

농가경영 안정과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 경영회생지원
- 농지연금
- 맞춤형 농지지원

지역개발·도농교류

농어촌개발, 도농교류로
활력 넘치는 파워(Power)
농어촌으로 디자인합니다

- 농촌개발
- 농산업 도농교류
- 어촌 종합개발

해외사업

100년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 기술용역
- 해외농업개발 지원
- 국제 농업협력

용수관리·에너지

농어촌용수관리전문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 관리
- 지하수·토양 오염정화
- 신재생 에너지·스마트팜